

『돈 끼호떼』와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욕망의 삼각형

사학과, 2014 학번 이원혁

목차

1. 들어가며.....	1
2.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	2
2.1 욕망의 삼각형 이론.....	2
2.2 외면적 간접화와 내면적 간접화.....	2
3. 돈 끼호떼의 욕망.....	3
4. 버나드의 욕망.....	4
4.1 버나드의 욕망.....	4
4.2 헬름홀츠의 욕망.....	4
5. 버나드의 욕망의 삼각형.....	5
6. 마치며.....	6

1. 들어가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 다닌다. 하지만 그들이 헬스장에 다니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 ‘아! 나는 운동을 해서 몸을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게 되는 이유는 텔레비전이나 헬스장 광고 포스터에서 등장하는 식스팩 몸을 가진 남성, S라인 몸매의 여성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이다. 즉, 헬스장에 가서 멋지고 섹시한 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망의 몸을 소유하고 있는 제 3자를 보고, 그 사람의 완벽한 몸을 닮고자 하는 감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2.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

2.1 욕망의 삼각형 이론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그의 저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한 소설의 주인공의 욕망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중개자를 거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주장한다. 지라르는 한 주체(Subject)가 한 대상(Object)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을 때, 주체와 대상 사이에 욕망의 중개자(Mediator)가 등장한다고 한다.¹⁾ 이렇게 주체와 욕망의 대상 그리고 중개자를 선으로 연결한 모양을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한 주체가 대상에 대해 욕망을 가지게 될 때, 그 주체는 중개자를 모방(Imitate)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욕망을 표출한다. 즉, 주체의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개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과 완벽함을 모방함으로써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 되어 나타나게 된다. 주체는 주체의 욕망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 주체는 중개자를 모방함으로써 자유를 호소하고 자아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²⁾

2.2 외면적 간접화와 내면적 간접화

지라르는 욕망의 간접화 현상을 욕망을 하는 주체와 그의 중개자간의 거리가 멀고 짧음을 기준으로 욕망의 간접화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한다.³⁾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고 주체가 중개자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욕망의 외면적 간접화(Mediation externe)이다.⁴⁾ 예를 들어, 한 소설에서 절대적인 ‘신’을 동경하고 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가 모방하고 있는 신과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며 신의 뜻대로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욕망이 외면적으로 간접화된 주인공은 그가 욕망의 중개자에게 어떠한 갈등의 감정도 느낄 수 없고, 독단적으로 중재자

1) 지라르 르네,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역, 한길사, 2001, 41~43쪽 참조.

2) Ibid.

3)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정신적인 거리도 포함한다. 한 소설 내에서 두 인물이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서로 정신적인 영역에 침투를 하지 않으면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4) Ibid., 48~50쪽 참조.

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방하는 중개자가 누구인지를 공공연하게 밝힌다.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단절된 욕망의 상태가 외면적 간접화라면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가까워서 두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내면적 간접화(Mediation interne)라고 한다. 내면적 간접화의 관계에 놓여있는 주체는 그가 모방하고 있는 중개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⁵⁾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줄거리 내에서 공존하는 주체와 중개자는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개자의 욕망은 그것을 모방하는 주체의 욕망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자신이 누구를 모방하는지 솔직히 밝히는 외면적 간접화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고 하고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지 못한다. 욕망이 내면적으로 간접화 되어 나타나게 되는 주체는 동일한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중개자에 대해 경쟁 심리를 느끼게 된다. 주체는 중개자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중개자에게 갈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주체는 중개자에 대해 순종적인 존경심과 강렬한 원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의 조합인 ‘증오(haine)’를 느끼게 된다. 중개자에 대한 이러한 적개심, 증오, 질투심은 욕망의 간접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⁶⁾ 즉, 주체가 중개자에게 경쟁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과 주체의 직접적인 거리는 멀어지게 되며 반대로 중개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중개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내면적 간접화에서 주체의 욕망은 ‘가짜’ 욕망이며 욕망의 내면적 간접화가 심화 될수록 “선망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⁷⁾고 지라르는 고한다.

3. 돈 끼호테의 욕망

돈 끼호테는 지라르에 욕망의 삼각형 이론 중 주인공의 욕망이 외면적으로 간접화 되어 나타나는 사례에 속한다. 돈 끼호테의 욕망은 완벽한 기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기사로 거듭나고 싶은 돈 끼호테의 욕망은 돈 끼호테 내부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욕망이 아니다. 돈 끼호테는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모방하고 아마디스의 기사도 정신을 계승하려고 한다. 돈 끼호테는 그의 하인 신포를 엘 또보소로 보내 돌시네아에게 서신을 전하게 하고 자신은 씨에나 모레나 산중에 혼자 남아 기사로서의 고행을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아마디스를 모방하고자 하는 돈 끼호테의 본심은 돈 끼호테의 말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아마디스 기사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아는 모든 기사의 지표요, 별이며 태양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디스야말로 기사도와 사랑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모방해야 하는 사표인 거야. 이치가 이러한 게 사실이니, 아마디스 기사를 가장 잘 모방하는 방랑기사가 훌륭한 기사도를 성취하는 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온 것이네.”⁸⁾ 신포에게 이렇게 말한 돈 끼호테는 신포가 돌아올 때까지 돌시네아를 그리워하며 사랑에 대한 기사도적인 고행을 스스로 행한다. 돈 끼호테가 하는 모든 기사도적 행동은 아마디스의 기사도 정신의 모방이다.

돈 끼호테와 그가 모방하고자 하는 아마디스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돈 끼호테는 16~17세기를 살아가는 방랑기사이고 아마디스는 12세기 중세 유럽에 살았던 과거에 존

5) Ibid.

6) Ibid., 51~59쪽 참조.

7) Ibid., 55쪽.

8)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1』, 민용태 옮김, 창비세계문학, 2012, 350-351쪽.

재했었던 기사이다. 아마디스는 돈 끼호페에게 신적인 존재이다. 돈 끼호페는 아마디스의 인성과 업적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아마디스에게 질투나 적개심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못한다. 돈 끼호페는 아마디스를 일방적으로 존경하고 모방하려고 한다. 돈 끼호페는 자신이 아마디스를 모방한다는 사실을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고 자랑스럽게 공표한다. 돈 끼호페는 그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 전설의 기사 ‘아마디스’를 그의 모범으로 삼고 아마디스의 기사도 정신을 본받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완전한 기사가 되고 싶은 돈 끼호페의 욕망은 아마디스라는 중개자를 통해 외면적으로 간접화 된 것이다.

4. 버나드의 욕망

4.1 버나드의 욕망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 ‘버나드 마르크스’는 욕망의 내면적 간접화 현상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버나드는 알파급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알파급 인간들에 비해 키가 작다는 결점이 있다는 이유로 미래 공화국에서 차별받는 인물이다. 버나드는 ‘돌연변이’로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자유가 통제된 인간다움이 사라져 버린 미래 공화국의 체제에 반감을 표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버나드는 그 누구보다 미래 공화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인물이다. 소설 첫 부분에서 버나드는 소마를 복용하기를 거부하고 ‘레리나’를 자신들의 성욕을 해소해주는 쾌락적인 존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남성들을 보며 혐오감을 느낀다. 하지만 소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후 야만인 ‘존’을 미래 공화국으로 데려온 버나드는 우쭐해져서 소마를 복용하기에 이르고 누구보다 쾌락적 성관계를 즐기는 인물로 변모한다. 어머니의 죽음을 죽음에 대한 조건 반사적 면역력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밖에 활용하지 않는 냉담한 미래 공화국에 대해 분노를 느낀 존은 소마 보급소를 습격해 소마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 버나드는 존의 공모자로 오해를 받아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위기에 놓인다. 버나드는 소장이 자신이 예전에 섬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었다고 한 말을 자신을 아이슬랜드 섬으로 추방할 것이라는 소리로 오해하고 소장에게 “오 제발 저를 아이슬랜드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⁹⁾ 라고 무릎 꿇고 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래 공화국 사회에 남아있고 싶어 하고 누구보다 이 사회에 적응하고 싶어 하는 버나드의 욕망이 절정에 달한다.

4.2 헬름홀츠의 욕망

미래 공화국에 적응하고 싶어 하는 버나드의 욕망은 ‘헬름홀츠’에 의해 극대화된다. 헬름홀츠는 알파 플러스 급 신분으로서 근육질 몸매에다 키도 크며 외모도 잘생긴 인물이다. 헬름홀츠의 주변에는 그와 쾌락적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서며 미래공화국 국민들 모두가 그를 존경한다. 하지만 헬름홀츠는 정작 본인 스스로는 미래 공화국 체제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헬름홀츠는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인간적인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감정이 통제된 미래 공화국에 의구심을 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런 헬름홀츠도 나중에 가서는 수면식 교육법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미래 공화국 체제에 어

9) 헉슬리 올더스, 『멋진 신세계』, 이덕형 옮김, 문예출판사, 2014, 287쪽.

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되는 인물이다. 헬름홀츠는 존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도중 존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내쫓지 마세요. 이 결혼을 한 달, 아니 한 주일만 연기시키세요.’”¹⁰⁾ 라는 구절을 헬름홀츠에게 읊어 주자 헬름홀츠는 박장대소하며 “나로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는 얼굴을 푹바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차지한다든가 못 차지한다든가 하는 것에는 아무도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¹¹⁾라고 말한다. 헬름홀츠는 그가 속한 사회에 반감을 품는 인물이지만 미래 공화국 사회가 제시하는 한계에 부딪혀 현실에 순응하고 마는 인물이다. 헬름홀츠도 인간다움을 추구했던 인물이지만 그의 욕망도 결국 버나드와 같은 미래 공화국에 동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버나드의 욕망의 삼각형

미래 공화국에 적응하고자 한 버나드의 욕망은 삼각형의 구도를 형성한다. 버나드의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자연발생적인 욕망은 키가 작다는 그의 신체적 결점에서 비롯된 미래 공화국에 대한 반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버나드가 미래 공화국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망은 바로 미래 공화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물상으로 추앙받는 헬름홀츠라는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 되어 나타난다. 버나드는 알파 플러스 신분이면서 모든 미래 공화국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며 모든 여자들이 쾌락적 성관계를 원하는 헬름홀츠를 동경한다.

전설의 기사 아마디스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돈 끼호테와는 달리, 버나드는 그의 욕망의 중개자인 헬름홀츠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까지 할 정도로 욕망의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 버나드와 헬름홀츠는 여러 번 직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물리적, 정신적으로 교류한다. 즉, 버나드의 욕망은 내면적 간접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지라르의 내면적 간접화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면적 간접화 관계에 놓인 주체와 중개자는 서로 동일한 대상을 욕망한다. 버나드는 중개자 헬름홀츠를 통해 미래 공화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고 헬름홀츠는 비록 미래 공화국 체제에 의구심을 품었던 인물이지만 하지만 조건반사적 교육의 한계에 부딪쳐 궁극적으로 미래 공화국 체제를 받아들이려 순응하고 살아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헬름홀츠의 욕망은 버나드의 욕망보다 더 거대하고 우월한 욕망이다. 왜냐하면 미래 공화국 사회에 완벽히 적응하고자 하는 버나드의 욕망은 이상적인 알파 플러스 계급 헬름홀츠를 동경하고 부러워하여 생기게 되는 위계적으로 낮은 욕망이기 때문이다. 버나드는 자신보다 더 우월한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헬름홀츠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한다. 버나드는 자신보다 우월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헬름홀츠에 대해 경쟁의식을 느끼게 된다. 『멋진 신세계』에서 버나드는 성관계를 맺자는 여성들을 뿌리치고 그녀들을 능멸하는 헬름홀츠를 보며 “‘정말 지겹군!’ 하고 버나드는 위선적으로 동의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헬름홀츠처럼 많은 여자들을 별로 애쓰지도 않고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¹²⁾ 소설 초반부에서 버나드는 헬름홀츠의 모습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지만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이 질투심은 헬름홀츠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예를 들어, 소설의 후반부에서 버나드가 미래 공화국에 데려온 ‘존’이 더 이상 대중들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자 버나드는 사람들에게 다시 무시 받게 된다. 헬름홀츠는 우정을 생각해

10) Ibid., 232쪽.

11) Ibid., 233쪽.

12) Ibid., 86쪽.

서 버나드에게 다시 다가와 주었는데, 버나드는 헬름홀츠가 베푼 관용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버나드는 이것에[헬름홀츠의 관용] 감동한 동시에 그의 관용 앞에서 비굴함을 느꼈다 - 그 관용은 소마 같은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헬름홀츠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별난 관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버나드는 당연히 감사했다. (다시 친구를 하나 얻는다는 것은 큰 위안이였다.) 그러나 동시에 화가 났다. (헬름홀츠의 관대함에 대해 어떤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유쾌한 일일 것이다.)”¹³⁾ 버나드는 그의 욕망의 중개자인 헬름홀츠에게 질투, 분노, 증오심을 표출한다. 버나드가 헬름홀츠에게 계속적으로 경쟁의식을 느끼면 느낄수록 버나드는 그의 욕망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미래 공화국에 적응하고 싶었던 버나드는 그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결국 아이슬랜드로 추방되어 버린다. 결국 내면적 간접화를 통해 나타난 버나드의 욕망은 헛된 ‘가짜’ 욕망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에 욕망의 중재자 헬름홀츠는 소설이 전개될수록 그의 욕망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헬름홀츠는 ‘존’이 저지른 범죄에 동참했다는 죄의 대가로 마르케사 군도나 사모아 같은 열대성 기후의 섬으로 추방 받는 것이 어떠냐는 무스타파 총장의 질문에 “바람과 폭풍이 거세게 부는”¹⁴⁾ 기후가 나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 헬름홀츠는 영국의 영토인 ‘포클랜드’로 가게 된다. 헬름홀츠는 인간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원시사회로 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미래 공화국, 영국의 영토인 포클랜드로 가는 것을 자처하며 미래 공화국에 남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실현한다.

6. 마치며

돈 끼호테와 버나드 마르크스, 이 둘은 각자의 욕망을 제3자인 중개자를 통해서 표출한 소설 속 주인공들이다. 돈 끼호테는 전설의 기사 아마디스를, 버나드는 이상적인 알파 플러스 계급 헬름홀츠를 모방하여 각자의 욕망을 간접화한다. 돈 끼호테와 버나드는 둘 다 자신이 닮고자 하는 중개자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둘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돈 끼호테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확고한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로 비추어 지지만 버나드는 자신이 누구인지 혼동하며 자신의 진실된 욕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리 저리 배회하는 불쌍한 존재로 비추어 진다. 돈 끼호테는 전설적인 기사 아마디스를 동경하고 모방하려고 하지만 아마디스의 우월함에 굴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반면에 버나드는 헬름홀츠라는 거대한 경쟁상대 앞에서 처참하게 욕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해 버리고 만다.

누군가를 모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모방은 인간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모방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인간은 모방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행위를 통해 생기 넘치는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¹⁵⁾

누군가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의 인격, 태도, 업적 등을 본받고자 하는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나’는 ‘나’이

13) Ibid., 226쪽.

14) Ibid., 291쪽.

15) Aristotle, “Poetics”, S. H.. Butcher trans., <The Internet Classics Archive>, 2009,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eb Atomics, <<http://classics.mit.edu/Aristotle/poetics.1.1.html>>, (2014. 12. 21), Part IV 참조.

다. '나'라는 주체는 내가 본받고자 하는 욕망의 중개자와는 별개인 고귀하고 특수한 존재이다. 욕망의 중개자를 존경하거나 본받고자 함에 있어서 '나'라는 주체는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중개자의 욕망과 '나'라는 주체의 욕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느냐와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돈 끼호페와 같은 삶을 사느냐 버나드 마르크스와 같은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참고 문헌

서적, 논문 자료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떼1』, 민용태 옮김, 창비, 2012.

지라르, 르네,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역, 한길사, 2001.

헉슬리, 올더스, 『멋진 신세계』, 이덕형 옮김, 문예출판사, 2014.

인터넷 자료

Aristotle, “Poetics”, S. H.. Butcher trans., <The Internet Classics Archive>, 2009,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eb Atomics, <<http://classics.mit.edu/Aristotle/poetics.1.1.html>>, (2014. 12. 21).